

중기부, '2026년도 제1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 '26년도 제1차 '윈윈 아너스 (WIN-WIN HONORS)' 10건 선정
- 이병권 제2차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2026년도 제1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10건의 대·중소기업 및 공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에 대해 기념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상호 이익을 창출한 상생협력 활동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기술 자립 및 글로벌 진출 4건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글로벌 규제 대응 2건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판로 확대 4건 등 총 10건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가스공사와 한일하이테크의 상생협력 사례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K-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실증비용과 기술 자료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일하이테크는 영하 162℃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변형이 없는 불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원가 30% 절감, 납기 4개월 단축, 77만 달러 규모의 역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과 ㈜위플렛은 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누수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에 성공했으며, 한국남동발전과 (주)성일터빈은 10년에 걸친 공동연구개발(R&D)을 통해 가스터빈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이끌어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안세기출 역시 스마트 제방빙 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한 상생협력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주)케이피씨엠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한화시스템과 서울스탠다드·유캐스트는 공급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해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판로 확대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스탠다드에너지와 대전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에서 신기술 배터리 실증을 진행해 화재 위험성을 낮춘 차세대 배터리 제품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좋은엘리베이터(주)는 승강기 응급구조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국제발명품박람회 금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주)문창은 국내에서는 취득이 어려웠던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해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했으며, 롯데지알에스와 해성팜(주)은 청년 농가와 협력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함으로써 지역 상생 생태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상생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장하는 것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넘어 금융, 방산,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건강한 동반성장 생태계가 정착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중기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서정남	(044-204-7926)
			주무관	권은경	(044-204-7912)
협력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책임자	부 장	심형택	(02-368-8705)
		담당자	차 장	문진환	(02-368-8783)



참고

원원 아너스 선정 기업 주요 상생사례

1.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자립 및 글로벌 진출 (4건)

- ① ‘평택 LNG 기지 개방을 통한 K-테스트베드 실증 및 기술 완성’
(한국가스공사 - 한일하이테크)
- ② ‘보안의 벽을 허문 인프라 개방과 발전소 특화 AI 공동개발’
(한국중부발전 - ㈜위플랫)
- ③ ‘중소기업과 10년에 걸친 신뢰로 고도의 리스크를 감수한 ‘실증 인프라’ 개방’ (한국남동발전 - ㈜성일터빈)
- ④ ‘중소기업과 공동 협력으로 세계 최초 지능형 제방빙 관리 시스템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 - ㈜안세기술)

▲ 한국가스공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초저온 분야 핵심부품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LNG 기지를 ‘K-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실증비 1.6억원을 지원. 이에 한일하이테크는 영하 162℃ 극저온에서도 변형이 없는 특수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블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폴란드 등에 77만 달러 역수출에 성공

▲ 한국중부발전은 보안 규제에 의해 발전소 특화 AI 개발에 난항을 겪던 ㈜위플랫을 위해 세종발전본부 내 소화수 관로를 실증 장소로 개방하고, 배관 도면과 소음 데이터, 기술개발비 1.2억원을 지원. 이를 통해 ㈜위플랫은 기계 소음 속 미세 누수 식별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인 AI 모델을 완성했으며, 플랜트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해외 판매계약 7만 달러를 달성

▲ 한국남동발전은 가스터빈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사 가스터빈을 실증 시험장으로 개방하고 연구개발비 14억원을 지원. ㈜성일터빈은 10년간의 공동 R&D를 통해 가스터빈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이번 협력으로 남동발전은 외산 대비 30% 비용 절감과 납기 6개월 단축하였으며, ㈜성일터빈은 미국과 사우디 등에 624만 달러의 역수출을 달성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대기시간을 초래하던 아날로그 제방빙 작업을 개선하고자 계류장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기술개발비 52.8억원을 지원.

이를 바탕으로 ㈜안세기기술은 세계 최초 스마트 제방빙 관리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 그 결과 공사는 이륙 소요시간을 절반 수준(90분→47분)으로 단축하고 연간 144억원을 절감했으며, ㈜안세기기술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과 해외 진출

2. ESG 등 글로벌 규제 대응 (2건)

- ⑤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을 통한 ‘CBAM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두산에너지빌리티 - ㈜케이피씨엠)
- ⑥ ‘민·관·연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 공급망 프로세스 개선’
(한화시스템 - 서울스탠다드, 유캐스트)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EU의 글로벌 탄소 규제(CBAM)에 따른 수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케이피씨엠에 상생협력기금 1.2억원과 컨설팅을 지원. ㈜케이피씨엠은 제조공정 및 에너지 데이터를 투명하게 개방해 맞춤형 탄소 산정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제3자 검증의견서’를 최종 획득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를 15% 증가

▲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경영 성장에 한계를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고자 상생 브랜드 ‘HPMS(Hanwha Partner Management Support)’를 런칭하고 상생협력기금 7천만원을 지원. 서울스탠다드와 유캐스트는 원가 정보와 핵심 공정 데이터를 과감히 공유하고 프로세스 개선에 동참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스탠다드는 KODATA ESG평가 1위, 유캐스트는 기술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방산 공급망을 고도화

3.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판로 확대 (4건)

- ⑦ ‘세계 최초 VIB ESS 실증을 위한 ‘공공 인프라 개방’과 ‘기술 고도화’’
(스탠다드에너지 - 대전교통공사)
- ⑧ ‘승강기 자동심장충격기(AED시스템) 공동개발을 통한 응급대응 체계 구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좋은엘리베이터(주))
- ⑨ ‘공단의 해외 실증 인프라 구축과 문창의 제조기술 결합으로 상생협력 모델 구축’
(한국환경공단 - ㈜문창)
- ⑩ ‘파종부터 신메뉴 개발까지, 민·관 협력의 ‘전주기 밀착형’ 선순환 체계 구축’
(롯데지알에스 - 농업회사법인 해성팜(주))

▲ 스탠다드에너지는 화재 위험이 없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실증 데이터가 없어 판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음. 이에 대전교통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하철 역사를 실증 장소로 개방하고 기술 가이드를 제시. 양 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까지 공동으로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스탠다드에너지는 매출 760% 성장과 2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대전교통공사는 역사 내 안전한 에너지 저장 체계를 구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층 건물 승강기 내 응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안전기준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55%를 지원. 좋은엘리베이터(주)는 내벽 매립형 구조의 응급상황 자동통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제네바 국제발명품박람회 금상 수상과 함께 신규 매출 1.57억원을 창출

▲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외인증기관(NSF)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현지 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문창은 공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닝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해외 인증(일본 수도협회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 공단은 1,671건의 분석 데이터를 확보, ㈜문창은 매출 6% 성장

▲ 롯데지알에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청년농가의 판로난을 해결하고자 시세와 관계없는 100% 구매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 컨설팅을 제공. 농업회사법인 해성팜(주)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전용 재배 공법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며 최적화된 고품질 감자 생산으로 계약 대비 102% 구매 실적을 달성. 롯데지알에스는 이를 활용한 로컬 상생 신메뉴를 출시하여 MZ세대의 가치 소비를 창출